

가족기업의 가족체계 :
소규모 가족기업에 있어서 가족구성원의 참여유형
A Family System of Family Business:
Participation within a Family in a Small Family Business

제주대학교 가정관리학과
부교수 김혜연
여주대학 가정학과
조교수 김성희

Dept. of Home Management Cheju National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 Hye-Yeon Kim
Dept. of Home Economics Yeojoo College
Assistant Professor : Sung-Hee Kim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
| III. 연구문제 및 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Although the term 'family business' is relatively new, this style of business is universal. An Unusual feature that must be noted, is that even though it is a common style of business is is not clearly defin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different family participation patterns, and the variables that effect different types of participation. '1997 Daewoo Panel Data' was used. Some descriptive statistics and a multinomial logit model were employed for the analysis. The standard type of business focused on in this study was a family owned and operated 'ma and pa' typed business and the sample was limited to households where one or both of the partners involved in a family owned and operated business. The main results obtained from this sample were as follows:

1. Personal characteristics such as respondents' gender, age and educational level were important variables that effected the participation of family members in the business. As can be seen in the gender analysis, family businesses owned by men showed all available pattens of family operated

businesses in relatively high numbers. A large percentage of businesses owned women were of self-employed pattern. According to the analysis by age and educational level, young people with a high level of education tend to managed their small businesses by employing others rather than utilising the self-employed or family operated pattern.

2. While big families showed a high percentage of a combination pattern of a family-run, and ordinary employer/employee company, relatively small families usually opted for purely family-run businesses. Whether the family have children under 6 or not, and the number of children under 6 did not significantly effect to the patterns of the family system of small family businesses.
3. The size, location and kind of family business also effected participation patterns of the family members significantly.

These results suggest that further study will be required to gain more exact and meaningful information to help Korean family businesses.

I. 서론

'가족기업'은 그 용어가 최근에야 사용되었을 뿐 전세계적으로 오래 전부터 존재해왔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의 유명한 식당들은 대부분 요리비법을 보존하기 위해 가족이나 친척에 의해 운영되며 일본만 하더라도 대대로 내려오는 가업을 잇는 전통이 있어 가족기업이 보편적인 기업의 형태이다. 또한 대만 역시 소규모 가족기업이 경제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더욱이 가족관계보다는 개인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서구 사회에서조차 가족기업의 중요성과 사회경제적 기여도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Heck, 1994).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가족기업은 경험적 인식의 수준에서 많은 기업이 가족기업의 형태를 갖고 있으며 현재 가족기업이 아니라 할지라도 기업 초기 단계에 가족기업으로부터 발전된 경우가 많다고 말할 수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강한 가족주의 가치관을 기초로 '부-자' 간의 경영특성을 지닌 중·소규모 가족기업이 많이 있으며, 도시보다는 지방, 그리고 지역에 따라 가족기업이 더 많이 존재하기도 한다.

한편 1980년대 이후 가족기업은 학문적인 주제로 다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가족기업이 가정특성과 기업특성이 서로 역동적으로 작용함으로써 비가족기업과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고, 가족의 역할이 가족기업의 경영안정과 생산성에 중요한 영향

을 미치며, 가족기업이 갖는 사회경제적 의미가 증가한 데에 따른 것이다(Ibrahim & Ellis, 1994). 또한 미래학자들은 흔히 앞으로의 젊은 세대들이 능력을 발휘하고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는 창업을 선호하며, 컴퓨터의 발달 및 보급으로 인한 소규모의 자영업 및 재택근무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 소규모의 자영업 및 재택사업이 가족기업의 형태를 갖기 쉽다는 점(김지희, 1999; 문숙재, 김지희, 1997)을 고려할 때 가족기업에 대한 연구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가족기업의 개념 및 정의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하며 연구자료가 풍부하다고 할 수 없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 가족기업에 대한 인식 및 연구는 초기 단계에 있는 실정이다. 특히 앞으로 가족기업에 대한 통계자료의 수집이나 관련 연구에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인 가족기업의 가족체계, 즉 가족기업을 소유, 경영하고 있는 가족단위 및 가족기업에 참여하고 있는 가족구성원(Aronoff & Ward, 1991)에 대한 분석이 실증적으로 규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과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가족기업의 가족체계를 분석하고 관련변수를 밝히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의 한계를 지닌다.

첫째, 본 연구에서 정의한 가족기업의 한정적 범위이다. 일반적으로 가족기업은 적어도 기업의 51%

이상을 단일가족이 소유하고, 최소한 한 사람 이상의 가족구성원이 사업의 경영 및 관리활동에 참여하고, 다음 세대의 가족구성원에게 기업의 소유권과 리더십이 계승될 것으로 예견되는 기업 및 조직체를 의미한다(Ibrahim & Ellis, 1994).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개념에 적합한 대상을 찾기란 어려우며 관련된 데이터를 얻는 것도 용이하지 않으므로 개념적으로 가장 유사한 소규모 자영업 및 자유업을 연구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가족기업이 포함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간접적 분석으로 제한된다.

둘째, 본 연구의 연구성격이다. 우리나라 가족기업의 가족체계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이루어진 적이 없으므로 본 연구는 가족기업의 가족체계에 대한 실태파악에 초점을 두고 이러한 가족체계에 차이를 가져올 것으로 가정되는 다양한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을 탐색함으로써 미래연구를 위한 자료를 제공하려는 예비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이상과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자영업 및 자유업을 하고 있는 부부가계를 대상으로 가족체계를 분석한다. 또한 가족체계에 차이를 가져올 것으로 가정된 설명변수들을 그 특징에 따라 일반적 특성, 재정관련 특성 및 자영업 관련 특성으로 구분하여 이들이 가족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가족기업의 가족체계에 대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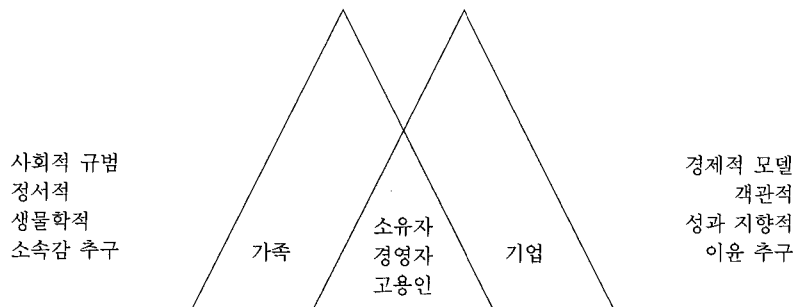
1. 가족기업의 가족체계

가족기업은 가족구성원이 기업을 소유하고, 기업의 경영 및 관리활동에 직접 참여하여 의사결정 및 통제권을 가지며(Chrchill & Hatten, 1987), 가족구성원의 상호작용 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는 조직체(Green & Pryde, 1989)이다. 이러한 가족기업은 일반기업과는 달리 '가정.기업'의 이중 구조와 기능을 갖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가족기업은 가정을 중심으로 현재 속해있는 사회내에서 사회적,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과 관련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가족기업은 기업영역에서 가족기업을 지속적으로 운영, 생존시키기 위한 생산 및 경제적 기능과 관련된 기업적 기능을 지향해야 한다(그림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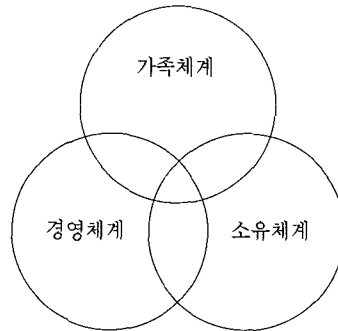
이러한 이중 구조와 기능은 각 영역의 구조와 기능 간에 필수적으로 상호작용을 요구하며 상호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이 두 영역간의 중복되는 경계부분은 전체 가족기업의 역기능적 장애요인을 유발하기 쉬운데, 이는 이 두 영역간의 역할분리가 어렵다는 데에서 기인한다(문숙재, 김지희, 1997).

이러한 가족기업의 구조와 기능은 가족기업의 구성체계에서 보다 잘 나타난다(그림 2).



<그림 1> 가족기업의 가정 및 기업적 이중 구조와 기능

출처: Ibrahim & Ellis(1994). Family Business Management: Concepts and Practice. Dubuque, IO: Kendall/Hunt Publishing, p. 110.



〈그림 2〉 가족기업의 구성체계: 가족체계 · 경영체계 · 소유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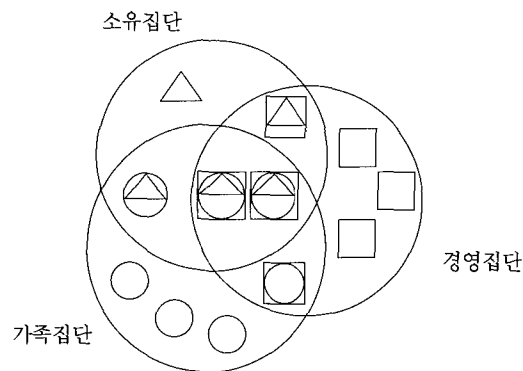
출처: Aronoff & Ward(1991), Family Business Sourcebook, Detroit, MI: Omnigraphics, Inc. p. 101.

〈그림 2〉에서와 같이 경영체계와 소유체계로만 구성되어 있는 비가족 기업과 달리 가족기업은 가족체계, 경영체계, 그리고 소유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각 하위체계들은 각 각 특유한 요구사항, 기대수준 및 책임수준을 갖고 있다.

가족체계는 가족기업을 소유, 경영하고 있는 가족단위 및 가족기업에 참여하고 있는 가족구성원을 의미한다. 가족기업내의 가족구성원은 가족구성원이면서 소유집단의 구성원인 동시에 경영집단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것이다(Aronoff & Ward, 1991).

따라서 한 가족구성원은 가족구성원으로서 우선

적으로 가정생활과 가족구성원의 만족에 관심을 갖게 되지만 소유자로서의 역할은 가족기업의 수익 및 이익을 달성하며 나아가 가족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추구하게 된다. 또한 경영자로서의 역할은 가족기업의 경영효율화를 위해 일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 이러한 가족구성원의 다중 지위 및 역할은 독립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하며, 궁극적으로 가족의 복지 뿐 아니라 가족기업의 경영적 성과를 좌우하게 된다. 가족기업에 있어서 이와 같은 가족구성원의 다양한 역할과 지위는 〈그림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가족구성원 □ : 경영자, 고용인 △ : 소유자

〈그림 3〉 Davis & Tagiuri(1982), Bivalent Attributes of the Family Firm, Family Business Sourcebook, Detroit, MI: Omnigraphics, Inc. p. 63.

2. 가족기업의 가족체계에 대한 관련변수의 고찰

가족기업의 가족체계는 가족기업의 소유,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가족구성원을 뜻하는데, 이들의 역할과 책임에 따라 가족기업의 경영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리나라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한 용현주(1998)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규모 가족기업은 가족구성원이 중요한 노동력의 주체로 이들에 대한 노동력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영자로서의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자질, 경영이념, 사업경험 등 개인적인 경영능력이 기업의 성공을 좌우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가족기업 역시 전문경영인보다는 가족구성원이 소유와 경영을 책임지며 이들을 중심으로 기업활동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해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한 가족구성원이 가족기업에서 맡게 되는 역할이나 참여정도는 그 가족구성원의 개인적 특징 및 능력 뿐 아니라 가정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가족구성원의 연령과 교육수준은 가장 일반적인 영향요인이다. 류재우, 최호영(2000)은 우리나라의 자영업 진입률과 퇴출률이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가족기업에 대한 참여에 있어서 개인의 연령이 유의한 변수임을 시사해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의 교육수준은 흔히 기업경영을 위한 성취동기, 지식, 기술 등과 관계가 있다. 이것은 많은 연구자들(Bemey & Owen, 1985; Casson, 1991)이 성공적인 가족기업의 요인으로서 개인의 기업가적 정신(entrepreneurship)을 들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하겠다. 가족구성원의 성별은 때로 가족기업에의 참여정도에 대한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최근 여성기업가나 혹은 가족기업에서의 여성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고 할지라도(김영옥, 1998; 애버던 외, 김흥기, 역, 1993) 여성은 기업경영보다는 가정일에 적합하다는 사회문화적 편견이라는 장애를 겪게 되는 경향이 높다((Moore et al., 1992). 그러나 가족기업의 수를 자영자의 수로 파악해볼 경우 1998년 현재 우리나라 자영자수는 약 435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1.8%를 차지한다. 이 중 남성 자영자는 302만명으로 전체 남성 취업자의

25.3%를 차지하며, 여성 자영자는 132만명으로 전체 여성취업자의 16.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한국여성개발원, 1999) 가족기업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의 수도 상당함을 알 수 있다.

가족의 가족크기 및 자녀관련 특징은 가정영역에서의 요구수준과 이에 따른 노동시간의 증가를 초래하므로 직접적으로 가족기업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 및 노동 집중도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가족구성원을 돌보는데 어려움이 많은 경우 경영자는 기업운영에 들여야 할 시간과 에너지를 가족구성원들의 욕구충족에 사용함으로써 가족기업의 경영효율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Loscocco et al., 1991). 특히 6세 이하의 어린 자녀의 존재유무와 자녀의 수는 여성의 역할부담의 주요 원인으로 기존 여성이 재택근무 형태의 가족기업을 선호하거나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문숙제, 김지희, 1997).

가계의 재정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측정지표인 소득, 지출, 자산, 부채, 소득원수 등(김순미, 1998)은 가족구성원들이 가족기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유발 요소로 작용한다. 소득은 자료의 획득이 비교적 쉽고 잠재적 구매력도 나타낼 수 있는 반면 소득원천의 평가절상이나 절하의 폭이 크므로 개인이나 가계의 경제적 능력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가계의 소비지출액을 가계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더 좋은 지표로 사용하기도 한다(Heck, 1988). 또한 동일한 소득을 갖고 있어도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및 부채 등의 저량에서의 차이로 인해 가계의 재정상태는 달라지게 된다(Lytton, Garman & Prter, 1991). 이와 같은 가계의 총소득 및 재정상태는 가족기업에 대한 투자정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투자액이 많을수록 가족구성원들은 가족기업에 참여하고자 하며 참여에 따른 만족도를 증가시킨다(Bian & Heck, 1995).

이상과 같은 요인 이외에 가족기업의 기업적 특성 역시 가족기업의 가족체계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가족기업의 기업재정상태를 나타내기 위한 일반적인 지표인 기업규모, 매출액, 수입 등은 가족구성원 및 비가족 고용인들의 노동력을 이용한 산출

이다(Bian & Heck, 1995). 또한 기업의 사업장 위치에 따라 가계의 지출비가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채택 가족기업의 경우 자녀양육비와 기타 생활비 등의 항목에서 지출을 감소시킬 수 있어 간접적 잠재소득을 얻을 수 있다(Pratt, 1986). 가족기업의 산업별 종류는 가족기업에서 요구하는 업무 및 근무시간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므로 가족구성원의 노동력정도와 집중도 및 비가족구성원의 고용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다.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가족기업의 가족체계실태와 이에 대한 설명변수들의 영향력을 탐색하는 데에 있다. 선행연구를 기초로 본 연구의 연구모형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Y = f(\text{개인 및 가족의 일반적 특성, 가계재정관련 특성, 가족기업 관련특성})$$

여기에서 종속변수인 가족기업의 가족체계는 가족기업에 참여하고 있는 인적 구성을 기초로 본인 혼자, 본인+가족/친지, 본인+종업원, 그리고 본인+가족/친지+종업원의 네 가지 유형으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네 가지 가족기업의 가족체계 유형에 차이를 가져올 것으로 가정된 독립변수들은 선행연구를 기초로 개인 및 가족의 일반적 특성, 재정관련 특성 및 가족기업 관련 특성으로 범주화하였다. 개인 및 가족의 일반적 특성에는 조사대상자의 성, 연령, 교육수준, 가족크기, 6세 자녀 유무, 6세 미만 자녀수가 포함되었으며 재정관련 특성은 총소득, 총지출, 총자산, 총부채 및 가계내 소득원수로 구성하였다. 또한 가족기업 관련 특성은 기업규모, 사업장 위치, 산업종류 및 순수입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의 정의와 측정방법은 <표 1>과 같다.

이러한 연구모형에 의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첫째, 가족기업 가정의 일반적 특성, 재정관련 특성,

가족기업 관련 특성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고 둘째, 이러한 변수들이 가족기업의 가족체계 유형에 미치는 영향력을 밝힌다.

2. 연구방법

1) 자료 및 표본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대우경제연구소의 1998년도 한국가구패널조사(KIHPS)이다. KHPS는 가계 및 가족구성원의 사회·경제활동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지 조사로서, 다단계층화확률표본방식(multi-stage stratified random sampling)에 의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추출한 6,320명으로 구성된 자료이다. 본 분석에 사용된 표본은 본 연구의 연구범위에 따라 남편 혹은 부인이 소규모 자영업 및 자유업에 종사하고 있는 부부가계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절차에 의해 사용된 최종표본은 713가계였다.

2) 분석방법

조사대상자의 개인 및 가족의 일반적 특성, 가계 재정관련 특성 및 가족기업의 가족체계유형을 조사하기 위해 빈도, 평균, 비율 등을 산출하였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특성이 가족기업의 가족체계 유형, 즉 가족구성원의 참여유형에 미치는 영향력은 본인 혼자 하는 유형을 기준으로 한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한 Multinomial Logit Model을 적용하였으며, 분석은 Limdep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개인 및 가족의 일반적 특성, 가계 재정관련 특성 및 가족기업 관련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남성이 대부분이었고 연령은 35-44세 집단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평균연령

<표 1>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

변 수	정의 및 측정 방법
종속변수 가족체계유형	0=본인 1=본인+가족/친지 2=본인+종업원 3=본인+가족/친지+종업원
독립변수 개인 및 가족의 일반적 특성	
성 별 연 령 교육수준 가족수 6세 이하의 자녀유무 6세 이하의 자녀수	1=남 0=여 응답자 본인의 연령(세) 1=35세 미만 2=35-44세 3=5-54세 4 = 55세이상 응답자 본인의 교육년수(년) 1=중학교 이하 2=고등학교 졸업 3=대학이상 함께 거주하는 가족수(명) 1=있음 0=없음 함께 거주하는 6세 미만의 자녀수(명)
가계재정관련 특성 총소득(만원/년) 총지출(만원/년) 총자산(만원) 총부채(만원) 소득원수	가구의 근로소득+자산소득+이전소득+기타소득 가구의 총지출 가구의 금융자산+실물자산 가구의 금융기관 부채+비금융기관 부채+사채+월부·외상 함께 거주하는 가구내 총소득원수(명)
가족기업관련 특성 기업규모 기업순수입(만원/년) 사업장 위치 사업의 산업종류	가족기업에 종사하는 친지+가족+종업원수(자영업자 포함)(명) 매출액 중 비용을 제외하고 남는 순수입 사업장의 위치 1=사업장 0=거주지 1=건설업 2=도소매/수리업 3=운수, 통신, 금융보험업 4=기타

은 약 43세 정도였다. 교육수준은 고졸 수준의 비율이 높았으며 자녀수가 1-2명 정도인 4인 가족의 형태가 많았다. 6세 미만 자녀는 없는 경우의 비율이 높았다. 가계의 재정상태를 살펴보면 총소득이 평균 3,651만원, 총지출은 2,006만원이어서 월평균 약 300만원의 소득에 약 150만원 정도의 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 가계의 총자산은 평균 8,452만원이었고 총부채는 658만원이었으며 가계내 소득원수는 1.5명이었다. 한편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사업종류는 도소매, 수리업과 그 밖의 기타 업종의 비율이 높았고 본인 포함 평균 2.3명의 소규모 기업이었다. 기업의 순수입은 년 평균 2,369만원이었고 사업장 위치는 거주지와 작업장의 비율이 대략 비슷하였다.

2. 조사대상자 가족기업의 가족체계유형

본 연구의 가족기업의 가족체계유형을 살펴본 결과 <표 3>과 같다. 가족체계구성을 보면 본인 혼자하는 유형이 4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본인+종업원유형, 본인+가족/친지유형, 그리고 본인+가족/친지+종업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 중 본인 혼자하는 유형이 약 50%로 나타난 것은 자영업 종사자수가 1인인 비율이 40.6%였던 여성통계연보(1999)와 유사한 결과로 사료된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 가족기업이 본인의 노동력을 기초로 하는 소규모 자영업의 형태를 가장 많이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713)

범주형 변수		빈도	백분율
성별	남성	590	82.7
	여성	123	17.3
연령	35세 미만	109	15.3
	35 - 44세	345	48.4
	45 - 54세	150	22.4
	55세 이상	99	13.9
교육수준	중학교	210	29.5
	고등학교	356	49.9
	대학교 이상	147	20.6
6세미만 자녀유무	유	229	32.1
	무	484	67.9
사업장 위치	거주지	295	41.4
	작업장	418	58.6
사업의 산업종류	건설업	78	10.9
	도소매, 수리업	331	46.4
	운수, 통신, 금융보험	89	12.5
	기타	215	30.2
연속형 변수		Mean	S. D.
연령 (세)		43.28	9.23
교육수준(년)		11.39	3.15
가족수(명)		3.98	1.03
6세미만 자녀수(명)		0.46	0.74
총소득(만원/년)		3651.55	2918.41
총지출(만원/년)		2006.39	1047.07
총자산(만원)		8452.21	7570.36
총부채(만원)		658.45	1364.10
소득원수(명)		1.51	0.69
기업규모(명)		2.30	4.66
기업순수입(만원/년)		2369.23	1503.05

* 모든 응답자수는 변수에 따라 차이가 있음

3. 조사대상자의 특징과 가족기업의 가족체계유형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 가족기업의 4가지 가족체계 유형 중 본인 혼자하는 유형을 기준으로 조사대상자의 특성이 가족기업의 가족체계 유형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Multinomial Logit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앞서 독립변수들의 상관관계와 다중공선성을 고려하여 가계 총자산과 총부채를 제외한 모델을 적용하였으며 그 분석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3〉 조사대상자 가족기업의 가족체계유형 (N=713)

가족체계유형	빈도	백분율
본인 혼자	335	47.0
본인+가족/친지	162	22.7
본인+종업원	163	22.9
본인+가족/친지+종업원	53	7.4

본인 혼자하는 가족체계 유형을 기준으로 할 때 본인+가족/친지 유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변수는 조사대상자의 성, 연령, 가족수, 기업규모와 그리고 사업장 위치였다. 즉 남성일 경우, 35세 미만이 아니며, 가족수가 적을수록, 기업규모가 클수록, 사업장 위치가 거주지일 경우 본인 혼자하기 보다는 본인+가족/친지 유형일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가 남성이고, 35세 미만이며, 대졸 이상의 교육수준을 가졌거나 기업규모가 작고 운수, 통신, 금융보험업이나 기타의 산업종류의 가족기업이 아닐 경우 본인 혼자하는 유형보다는 본인+종업원 유형일 확률이 높았다.

또한 본인+가족/친지+종업원 유형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던 변수는 조사대상자의 성, 교육수준, 가족수, 사업장 위치, 가족기업의 산업종류였다. 즉 조사대상자가 남성이고, 대졸이상의 학력을 갖지 않으며, 가족수가 많고, 사업장 위치가 작업장이며, 운수, 통신, 금융보험업과 기타의 산업일 경우 본인 혼자하는 유형보다는 본인+가족/친지+종업원의 유형을 가질 확률이 높은 경향이었다.

이상과 같은 결과는 조사대상자의 성이 가족기업의 가족체계 유형에 매우 유의한 영향변수임을 보여준다. 즉 남성일 경우 모든 가능한 가족체계 유형을 가질 수 있는 반면, 여성일 경우 본인 혼자하는 유형일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여성이 가족기업을 경영하게 될 때 가족이나 종업원 등의 도움 없이 본인 노동력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소자영업의 형태를 가질 경향이 높다고 할 수 있다(김영옥, 1998; 차성란, 정영금, 2000).

Heck(1984)의 연구에서와 같이 연령과 교육수준은 가족기업의 가족체계 유형에 유의한 변수였다.

〈표 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체계유형 분석결과

변수 측정	가족체계유형			본인 + 가족/친지 유형			본인 + 종업원 유형			본인 + 가족/친지 + 종업원 유형		
	Coefficient	Std. Error	t-ratio	Coefficient	Std. Error	t-ratio	Coefficient	Std. Error	t-ratio	Coefficient	Std. Error	t-ratio
개인 및 가족의 일반적 특성												
성(여성)	0.46***	0.68E-01	6.81	0.28***	0.59E-01	4.65	0.26***	0.57E-01	4.57			
연령(35~44세)	-0.19***	0.54E-01	-3.49	0.15***	0.47E-01	3.11	0.42E-01	0.45E-01	0.92			
35세 미만	0.19E-01	0.62E-01	0.31	-0.82E-01+	0.55E-01	-1.50	0.63E-01	0.52E-01	1.20			
45~54세	0.30E-01	0.47E-01	0.64	-0.48E-01	0.41E-01	-1.16	0.18E-01	0.40E-01	0.44			
55세 이상	0.18E-01	0.61E-01	0.29	0.40E-01	0.53E-01	0.76	-0.58E-01	0.51E-01	-1.14			
교육수준(고졸)	-0.74E-02	0.46E-01	-0.17	0.89E-01*	0.39E-01	2.28	-0.81E-01*	0.37E-01	-2.18			
중졸이하	-0.51***	0.46E-01	-3.23	-0.12E-01	0.41E-01	-0.30	0.16***	0.39E-01	4.21			
대졸이상	0.73E-01	0.60E-01	1.22	-0.60E-01	0.53E-01	-1.15	-0.13E-01	0.50E-01	-0.26			
가족수	0.17E-01	0.20E-01	0.81	-0.99E-02	0.18E-01	-0.56	-0.67E-02	0.17E-01	-0.39			
6세미만 자녀유무(없음)	-0.10E-04	0.12E-04	-0.82	-0.50E-05	0.11E-04	-0.47	0.15E-04+	0.10E-04	1.47			
6세미만 자녀수	-0.62E-06	0.75E-05	-0.08	-0.22E-05	0.66E-05	-0.34	0.28E-05	0.63E-05	0.45			
가계재정관련 특성	0.10E-04	0.13E-04	0.79	-0.41E-05	0.11E-04	-0.36	-0.62E-05	0.11E-04	-0.56			
가계 총소득	0.53E-01*	0.28E-01	0.06	-0.59E-01**	0.24E-01	-2.43	0.62E-02	0.23E-01	0.27			
가계 총지출	-0.16E-01	0.37E-01	0.66	0.11E-01	0.32E-01	0.33	0.55E-02	0.31E-01	0.18			
가계내 소독원수	-0.37E-05***	0.90E-06	0.00	0.13E-06	0.79E-06	0.16	0.36E-05***	0.76E-06	4.72			
기업관련 특성	0.29E-04	0.48E-04	0.55	0.18E-04	0.42E-04	0.42	-0.47E-04	0.41E-04	-1.16			
기업규모	-0.44E-02	0.21E-01	0.83	-0.47E-01**	0.18E-01	-2.57	0.51E-01***	0.17E-01	2.98			
기업순수입	-0.60E-01	0.69E-01	0.38	-0.19***	0.60E-01	-3.14	0.25***	0.58E-01	4.32			
사업장위치(거주지)												
작업장												
산업종류(도소매·수리업)												
건설업												
운수, 통신, 금융보험업												
기타												
상수	0.57***			0.48***						-0.58E-01***		
Log-Likelihood				-594.22								
Restricted Log-Likelihood				-871.41								
Chi-Squared(54)				554.38***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본인 혼자하는 유형에 비해 본인+가족/친지 유형은 35세 미만의 젊은 집단이 아닐 확률이 높았던 반면 본인+종업원 유형은 35세 미만의 젊은 집단일 확률이 높아 조사대상자의 연령에 따라 가족기업의 가족체계 유형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교육수준 역시 가족체계 유형에 유의한 변수여서 혼자하는 유형에 비해 대졸이상의 교육수준을 가진 집단은 본인+종업원 유형을 보였던 반면 본인+가족/친지+종업원 유형을 가질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인 혼자하는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고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은 본인+종업원 유형일 확률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가족수는 혼자하는 유형에 비해 본인+가족/친지 유형과 본인+가족/친지+종업원 유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으나 그 영향력의 방향은 반대였다. 혼자하는 유형에 비해 가족수가 많을수록 본인+가족/친지+종업원의 유형인 반면 가족수가 적을수록 본인+가족/가족친지 유형일 확률이 높았다. 그러나 많은 연구자(문숙재, 김지희, 1977; Loscocco et al., 1991)가 지적한 것과 달리 6세 미만 자녀유무나 6세 미만 자녀수는 가족기업의 가족체계 유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한편 본 조사대상자의 가족기업의 경우 가계의 재정관련 특성이나 기업의 순수입과 같은 경제적 변수는 가족체계유형에 거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족기업의 기업관련 특성은 가족체계유형과 관계가 있어 가족기업의 기업규모, 사업장위치나 산업종류가 가족기업의 가족체계유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가족기업이 어린 자녀의 존재와 수 혹은 경제적 상태보다는 가족기업의 종류와 산업의 차이에 의해 가족체계 유형이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본 조사대상자의 가족기업이 용현주(1998), 최태룡(1991)의 지적과 같이 가족상황을 고려하거나 계획적 기업경영을 시도하고 있기 보다는 생계유지의 측면에서 영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우리나라 가족기업에 있어서 가족구성원의 참여정도를 나타내는 가족체계유형에 대한 실태분석과 관련변수를 탐색함으로써 앞으로 가족기업에 대한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가족기업에 대한 선행연구의 미비와 접근가능한 자료의 제한 등으로 본 연구에서는 가족기업의 범위를 소규모 자영업 및 자유업으로 한정짓고 조사대상자 가족기업의 가족체계 유형을 분석하였다. 이 때 가족체계 유형은 가족구성원의 참여정도에 따라 본인 혼자, 본인+가족/친지, 본인+종업원, 그리고 본인+가족/친지+종업원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이러한 가족체계 유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된 독립변수들은 그 특성에 따라 개인 및 가족의 일반적 특성, 가계재정 관련 특성 및 기업관련 특성으로 범주화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 가족기업은 대략 40대의 고졸 수준의 남성이 경영하고 있는 비율이 높았다. 산업종류로는 도소매, 수리업 등이 가장 많았고 본인 포함 평균 23명의 소규모였다. 사업장 위치는 거주지와 작업장의 비율이 비슷하게 분포되어 있어 일반 기업에 비해 거주지에 작업장을 갖고 있는 비율이 높아 가족기업이 재택기업의 형태를 갖고 있는 비율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가계재정관련 특성과 기업관련 특성에 포함된 재정상태를 살펴보면 조사대상자 가족기업은 일반 기업에 비해서는 소규모이지만 사회경제적 비중이 크며, 이에 따라 류재우, 최호영(2000)의 지적과 같이 일반 임금근로자들이 가족기업의 창업을 고려하게 되거나 가족기업의 운영을 지속시키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조사대상자 가족기업의 가족체계 유형은 본인 혼자 하는 유형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것은 우리나라 자영업의 대부분이 1-2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자영업이라는 데에서 기인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우리나라 가족기업 역시 소규모 형태

가 많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기업이 소규모로 경영될 경우 조직구성의 간소화에 따른 비용절감과 생산성의 향상이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경영을 하기 어려운 영세기업의 특징을 갖기 쉽다(용현주, 1998). 따라서 소규모 가족기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과 정책이 요구된다.

셋째, 조사대상자의 성, 연령, 교육수준 및 가족수는 가족기업의 가족체계 유형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던 변수였다. 남성일 경우 모든 가능한 가족체계 유형을 가질 가능성이 높았던 반면 본인 혼자하는 유형은 상대적으로 여성일 확률이 높았던 결과는 여성이 가족기업을 운영할 경우 소규모의 영세 기업을 운영할 가능성을 시사하므로 여성 가족기업 경영자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요구된다. 또한 상대적으로 젊고,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은 본인 혼자 보다는 본인 + 종업원 유형일 확률이 높았다. 이것은 젊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족/친지의 도움을 기초로 한 기업보다는 전문적이고 조직화된 기업을 경영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넷째,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이 가족기업의 가족체계 유형에 유의한 영향변수였던 반면 자녀관련 변수나 가계재정 관련 특성은 선행연구에서 그 중요성이 지적된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업관련 특성에서 기업규모, 사업장위치와 산업종류 등은 가족기업의 가족체계 유형과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가족기업에 있어서 가족구성원의 참여정도는 가계의 재정상태나 자녀와 같은 가정상황보다는 가족기업의 기업적 특성에 의해 더 좌우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즉 우리나라 가족기업은 가계와 가정의 요구와 책임에 의한 계획적 경영이 아닌 영세기업의 특징이 클 가능성을 시사해준다. 따라서 영세가족기업의 자녀양육과 같은 가족적 지원 뿐 아니라 재정지원 및 기업경영자문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 가족기업에 대한 연

구와 정책을 위한 기초연구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탐색적 성격이 강했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일반적 결과와 함께 본 연구만의 특수한 결과가 모두 내포되어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일반화와 가족기업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위해서 앞으로의 계속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 참고문헌

- 1) 박인숙, 이경희(2000). 가족기업의 사업공간특성. 한국가족자원관리학회 학술발표회.
- 2) 김순미(1998). 재무계획 수립을 위한 노인가계의 재정상태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6(10), 179-195.
- 3) 김영옥(1998). 여성의 창업과 기업경영: 현황과 정책과제.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4) 김지희(1999). 가족기업(Family Business) 가정에 관한 연구: 이론 및 실태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5) 김혜연, 김성희(2000). 가족기업의 가족체계분석. 한국가족자원관리학회 학술발표회.
- 6) 류재우·최호영(2000). 자영업 부문을 중심으로 한 노동력의 유동. 한국노동경제논집 월례 학술발표회.
- 7) 문숙재, 김지희(1997). 가족자원활용을 위한 재택사업(Home-Based Business)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창간호, 43-55.
- 8) 신경아(1994). 여성가내 노동자의 현실과 보호. 여성연구. 제 45호,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9) 용현주(1998). 1998년도 한국의 소규모 기업 경영실태분석. 서울: 국은경제연구소.
- 10) 차성란, 정영금(2000). 가족기업의 개념과 연구현황. 한국가족자원관리학회 학술발표회.
- 11) 최태룡(1991). 구중간층의 형성과 사회의식: 전주시 자영업자층에 대한 경험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2) 패트리셔 애버던, 존 나이스비트 지, 김흥기(역)(1993). 메가트렌드 2000.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 13) 한국여성개발원(1997). 여성통계연보.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14) 홍성희, 김순미(2000). 가족기업의 가계재정상태와 기업재정상태. 한국가족자원관리학회 학술발표회.
- 15) Aronoff, C. E. & Ward, J. L.(1991). *Family Business Sourcebook*. Detroit, MI: Omnigraphics, Inc, 98-119.
- 16) Berney, R. E. & Owen, E.(1985). A Theoretical Framework for Small Business Policy. *Policy Studies Journal*, 13, 681-691.
- 17) Bian, J., & Heck, R. K. Z.(1995) What We Can Learn about Family Businesses over Time from the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1988-1992, *Family Business Annual Research Papers, IFBPA*, vol.1, 39-63.
- 18) Casson, M.(1991). *The Entrepreneur: An Economic Theory*. Hampshire, England: Gregg Revivals.
- 19) Ibrahim, A. B. & Ellis, W. H.(1994). Family Business Management: Concepts and Practice. *Information and Management*, 23, 321-330.
- 20) Churchill, N. C. & Hatten, K. J.(1987). Non-Market-Based Transfers of Wealth and Power: A Research Framework for Family Businesses. *American Journal of Small Business*, 11(3), 51-63.
- 21) Green, S. & Pryde, P.(1989). *Black Entrepreneurship in America*.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 22) Heck, R.K.Z.(1984). A Preliminary Test of a Family Management Research Model.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7, 117-135.
- 23) _____(1991). Employment Location Choices: Factors Associated With the Likelihood of Home-Based Employment. *Lifestyles: Family and Economic Issues*, 12, 217-233.
- 24) Loscocco, K. A. et al.(1991). Gender and Small Business Success: An Inquiry into Women's Relative Disadvantage. *Social Forces*, 70(1), 65-85.
- 25) Moore, D. P. et al.(1992). Stepping Off the Corporate Track: The Entrepreneurial Alternative. (eds.) Skaren U., & F. Leong. *Woman Power*. NY: Sage Publications, 85-109.
- 26) Pratt, J. H.(1986). Literature on Home-Based Business, Work and The Family-Owned Business and Measurement and Evaluation of the Population of Family-Owned Business (*Final Report, SBA-9202-AER-85*). Washington, D.C.: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